

東醫精神心理療法인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教室

吳尙勳 · 金知赫 · 黃義完

I. 緒 論

東醫學의 “移精變氣療法”^{註1)}은 오늘날의 精神心理療法에 該當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不可分한 相互作用을 바탕으로 肉體的이거나 精神的인 病 혹은 兩者의 組合으로 發顯되는 心身症의 治療를 위해 行하여져온 東醫學의 卓越한 治療法중 하나이다.

東洋醫學의 最古原典인 黃帝內經 全般에 걸쳐 心身相關性과 一體性에 대해 累累히 精微로운 言及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陰陽應象大論의 七情治法을 통해서 感情에너지의 移轉에 依한 精神治療라는 精神心理療法의 훌륭한 理論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理論은 그후 張子和, 朱丹溪 등 여러 臨床家들에 의해 實際臨床에 이용되어 그 治療事例들이 여러 醫書에 1,6,9,13,16,17,18)에 收錄되어 있다. 이에 대해 治療의 구체적 理論은 論外로 하고 全事例를 概觀하면 이 治療法들이 現代의 各種 精神療法과 神奇하게 一致하고 있음을 客觀적으로 證明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三國遺史⁶⁾, 三國史記¹⁾ 등을 통해서도 內經理論과 一致하는 精神療法의 治療事例가 記錄되어 있고, 東醫寶鑑⁹⁾에도 治療의 다섯레가 引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治療法이 韓國에 있

어서도 古來로부터 綿綿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現代의 各種 精神療法에 대한 理論이 확립되어 온것이 不過 몇백년 內의 일임을 勘案할때 東洋先賢의 智慧가 탁월함에 戰慄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現代의 精神療法과 상당히 一致하는 東洋의 移精變氣療法이 黃帝內經에서부터 벌써 理論화되어 歷史를 이어 이용되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精神病 治療에 東洋醫學이 寄與하는바 크지 못할뿐 아니라, 점점 無關한 領域으로 멀어져 가고만 있는 形便이다.

이에 著者는 東洋醫學上에 나타난 精神心理療法의 治療事例들을 拔萃하여 考察하는바 모든 醫家들이 先賢의 智慧를 마음으로 얻어 實際臨床에서 그 意를 살려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 글은 理論이 뒷받침된 治療라는 立場에서 著述하였기에 信仰治療 및 巫呪에 依한 治療는 除外시켰으며, 또한 患者 스스로의 修養에 그 초점이 있는 養神, 養生의 部分마저 除外시켰음을 밝혀둔다.

II. 本 論

1. “五志相勝爲治療法”^{註2)}에 依한 治療

註1) 本著者는 素問의 移精變氣論을 基礎하여 東醫學의 精神療法을 “移精變氣療法”이라 命名하였고 이에 대한 治療事例의 分析과 現代의 精神療法과의 關係考察을 통해 便宜上 이를 다섯가지의 治療法으로 大別하였다.

註2) 이 名稱은 東醫寶鑑 神門의 五志相勝爲治를 基礎로하여 移精變氣療法의 한 方法으로 著者가 붙인 것이다.

事例

1) 怒勝思法에 의한 治療事例

① 治一郡守篤病할새 以爲成怒하면 則瘥라 하고 乃多受其貨라가 無何에 棄去하고 留書罵之하니 郡守噴患하야 吐黑血數斗而愈하니라 13)

② 治一女子不病不食할새 面北臥者半載에 肝脈이 弦하야 出寸口어늘 公曰「此는 思未不歸하여 氣結於脾也라 必激其怒니 怒之氣는 屬木이라 故로 能衝土之結하면 怒已焦食이라, 公曰 思氣雖解나 必得喜라야 庶不再結이라 하고 乃詐言夫且夕且歸라 하니 遂愈矣니라 13)

③ 嘗治一婦人할새 久思而不眠하야 余假醉而不問하니 婦果呵怒타가 是夜困睡더라 16)

④ 一女許婚後 夫經商二年不歸 故로 因不食 困臥如癡 無他病에 竟日向壁而臥할새 其父迎丹溪翁治之하여 告以故하니 翁脈畢謂其父曰「此思則氣結也라 藥難獨治하고 得喜可解나 不然令其怒라」於是掌其面하고 誣以外情하니 果大怒而號泣者三時다가 令解之即求食矣더라. 所以然者는 悲則氣消 하고 怒則勝思故也라. 翁謂其父曰「病雖瘥得 喜方已라」乃論以夫 回既而 果然疾亦不舉하더라 17, 18)

⑤ 一富家婦人이 傷思慮하여 二年不寐에 無藥可療할새 其父求載人治之하니 載人曰兩手脈俱緩하니 此脾受之也 脾主思故也 하고 乃與其夫以怒而激之하여 多取其財 飲酒數日하더니 不處一法而去하니라. 其人大怒 汗出하더니 是夜困眠이라. 如此者 八九日不寤더니 自是而進食하고 脈得其平이더라 16)

⑥ 一女子母甚是相愛타가 既嫁而母死 하니 遂思念不已하여 精神短少厭厭嗜臥 諸藥不應할새 其夫延 韓世良治之하니 韓曰「此病得之於思니 藥不應易愈라 當以術治之하

니라」乃其有一巫婦 授以秘語하고 一日夫謂 妻曰「汝之念母如此이나 不識彼在地下 亦念汝否이나 吾當他往汝盍求巫婦卜之」妻欣諾 遂召巫至더라. 焚香禮拜而母靈降矣한데 一言默宛然其母之生前也라. 女遂大泣인데 母叱之曰「勿泣汝之生命尙我 我遂早死 我之死皆汝之故라. 今在陰可欲報하니 汝離 汝病厭厭實我所爲라. 我生則 與爾母子이나 死則爾寇離矣인저」言訖, 女改容大怒 話之曰「我因母病인데 母反我害라 我何樂而思之이라」自是而病愈矣더라 18)

2) 喜勝憂法에 의한 治療事例

① 息城司候가 聞父死千賊하여 乃大悲哭之할새 罷便覺心通 日增不已하더니 月餘成塊 狀若覆杯인데 大通不往이라. 藥皆無功議用燔金注艾病人惡之한지라 乃求于戴人 한 즉 戴人至 通巫者在其傍乃學巫者 雜以狂言 以謔病者하니 至是 大笑不忍 回面向壁하기를 一二日하니 心下結塊皆散이더라 戴人曰 內經言憂則氣結 喜則百脈舒和 又云 喜勝悲 內經自此法治之라 16)

② 治人之悲結者를 余又嘗以針下之時에 便雜無忽笛鼓應之하다. 16)

③ 韓丞相疾 天方不雨로 更十醫 罔効할새 左右信 最後至脈已한데 則以指指甲子曰「某日當雨」라 竟出韓疑曰기를 「豈爲吾疾不可爲耶 何言雨而不及葯我也」既而其夕果雨하니 韓喜起而行乎庭더라 達旦疾若脫去하거늘 乃召左至而問之하니 對曰「公相之疾以憂得之라 私計公相忠且仁인데 方今久旱이라 必爲民憂 以旱爲憂 必以雨而瘳理固宜然이나 何待葯而愈耶리오 此亦素問 喜勝憂也라」 18)

④ 一縣差拿犯人에 以鐵索項所인데 犯至縣 行至中途에 其犯投河而死하니 犯家告差人索騙威逼至死라하니 乃能脫罪려면 未免破財라 憂憤成病하여 如醉如癡 謬言妄語

無復知識할새 其主延戴念仁視之하니 戴云「此以費財而病이니 必以得財而愈라」乃命作三錫錠如銀狀預置於泥溝之中하고 候其至時詐以鎖鑰誤隨其中이라. 命探之乃出三錫錠하니 主曰「銀也 吾不用此不義之財 悉以與汝」터라. 其差握視不置더니 病遂日愈라 此亦喜勝憂也라 18)

⑤ 譚植素 謹言爲韶州 佐一日會堂屬官筵中有인데 蘿蔔頗大衆羨之하니 譚曰尙有大如人者하니 衆皆笑라 以爲無譚悔恨自咎曰「人不見如是大者而吾以是語之宜其以吾言爲妄且笑也라」터라 因而憂憤連日不能食이라. 其子煌讀書達事인데 思父하니 素不輕言 因愧赧成疾인지라 必實所言始可療病이라. 遂遣人至家하여 取蘿蔔如人大者라하고 至官所復會堂屬強父扶疾而陪터라 酒至數巡 以車載至席前하니 衆皆驚訝라 其父大喜더니 厥旦疾愈라 此亦素問 喜勝憂也라 18)

⑥ 神文王이 即位한뒤 憬興法師을 國老로 삼아 三郎寺에 머물게 하였는바 그에게 여러가지 이상한 일이 생겨나고 갑자기 病이 들게 되었다. 病이 든지 여러달에 한 女僧이 와서 보고 華嚴經中 善友原病의 說로써 말하기를 지금 師의 病은 憂勞의 所致니 喜笑하면 나으리라하고 十一相의 面貌를 만들어 웃음거리 춤을 추게하니 모두들 너무 우스워 턱을 떨어뜨릴 지경이었다. 이에 師의 病이 不知中에 깨끗이 나왔다. 6)

3) 恐勝喜法에 依한 治療事例

① 治以喜樂之極而病者에 莊切其脈할새 爲之失聲佯曰키를 吾取藥去 數日更不來라하니 病者悲泣하며 辭其親友曰키를 吾不久日터라 莊知其將愈하여 慰之하니 詰其故

라 莊引素問曰懼勝喜也라 16)

② 趙知則太原人인데 因喜成疾할새 巢氏醫脈之하더니 爲之驚異하며 出取藥竟不與之라하니 數日을 趙悲哭하고 辭家人曰키를 處世不久矣하다. 巢知其將愈 使人慰之하니 詰其故라 引素問 恐勝喜以對可謂得元關者也라 18)

2) “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註3)에 依한 治療事例

① 項關令之妻病飢不欲食에 常好叫呼 怒罵欲殺左右 惡言不輟할새 衆醫皆處葯幾半載에 尙爾하니 其父命 戴人視之하니 戴人曰此 難以葯治라 乃使二娼 各塗丹粉作伶人狀하니 其婦大笑터라. 次日又令作角觝하니, 又大笑라 其旁常以兩箇하여 能食之婦誇其食美하니 其婦亦索其食而爲一嘗之터니 不數日에 怒滅하고 食增하니 不葯而瘥하고 後得一子라 16)

② 治人之憂而心痛者에 余嘗擊拍之 聽使其聲不絕하니 以治因 驚而畏響魂氣飛揚者라 16)

③ 按聞見錄云 州監軍病 悲思에 其子迎赫允治之하니 允告其子曰 法當甚悸則愈라하다. 時通守李宋卿 御史嚴甚하여 監軍內所畏也라 允與其子 請於宋卿하여 一造하고 問責其過失하니 惶怖汗出터니 病乃愈터라. 蓋恐思則氣結하고 驚怖則其浮하는데 浮則氣不結矣라. 此亦以情相勝也라 18)

3. “驚者平之療法”註4)에 依한 治療事例

① 衛德新之妻가 旅中宿于樓上타가 夜值盜却人燒舍로 驚墜牀下한데 自後每聞有響則驚倒不知人이라 家人輩躡足而行에도 莫敢冒觸有聲하고 歲餘不痊할새 諸醫作心痛治之

註3) 이名稱은 東醫寶鑑 神門의 五志相勝爲治를 基礎하여 著者가 붙인 것인데 以情相勝治法이면서도 五志相勝理論에 구애됨이 없이 응용된 治療法들을 포함하는 移精變氣療法의 한 方法이다.

註4) 이名稱은 素問의 至眞要大論에 나오는 驚者平之의 論을 빌어 移精變氣療法의 한 方法으로 著者가 分類命名한 것이다.

로 人參珍珠及定志丸하나 皆有無効라 戴人見而斷之曰기를 驚者爲陽從外入也 恐者爲陰從內出인즉 驚者爲不知故也이고 恐者自知也니라. 足少陽胆經은 風肝木인데 胆者는 敢也니 驚怕則胆傷矣라. 乃命二侍女執其兩手하고 按高椅之上하여 當面前케하다. 下置一小几하여 戴人曰기를 娘子當視此하고 一木猛擊之하니 其婦大驚이라. 戴人曰 我以木擊几니 何以驚乎인고, 何少定擊之하니 驚也緩이더라. 又斯須連擊三五次에 又以杖擊門하고 又暗遣人晝背後之窗하니 徐徐驚定而笑曰기를 是何治法이오하니 戴人曰 內經云 驚者平之라 平者는 常也인데 平常見之는 必無驚이라 是夜使人擊其門窗하고 自夕達曙라. 夫驚者는 神上越也니 從下擊几하고 使人下視는 所以收神也라. 一二日雖聞雷라도 亦不驚이라. 德新素不喜戴人이다가 至是終身厭服이더라 16)

4. “誑治療法”^{註5)}에 의한 治療事例

① 한 婦人이 虫을 誤食하여 항상 꺼림칙하게 여기다가 病이 되었는데 每番의 治療에 効驗이 없었다. 元頌에게 診治를 請하였는데 元頌은 그 病된 바를 알고나서 그 男便에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한명 뽑아오게 해서 미리 경계하기를 “이제 藥으로 吐泄시킬 것이니 이를 그릇으로 잘받되 吐할때에 小蝦蟆 한 마리가 달아났다고 말하라. 그러나 病者에게는 이것이 誑治임을 절대로 알게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이래서 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⁴⁾

5. “至言高論療法”^{註6)}에 의한 治療事例

① 時忠恭角于이 爲上大等일때 坐政事堂하여 注擬內外官이더니 退公感疾이라. 召

註5) 이 名稱은 事例의 內容中에 採擇된 治療法의 이름을 빌어 著者가 移精變氣療法의 한 方法으로 分類 命名한 것이다.

註6) 이 名稱은 事例의 內容中에 등장하는 治療手段에 대한 名稱을 빌어 著者가 移精變氣療法의 한 方法으로 分類·命名한 것이다.

國疾診脈하니 曰病在心忙이니 須服龍齒湯이라한데, 祿眞曰 伏聞寶體不調한즉 得非是早朝晚罷이고 蒙犯風露以 傷榮衛之和이며 失支體之安乎曰하여도 未至是也이고 但昏昏 嚶嚶 精神不決耳이니 然則公之病 不須藥石하고 不須針砭하다. 可以「至言高論」一攻而破之也라. 聞祿眞之言하니 同於藥石이라 病이 快愈하다.¹⁾

II. 總括 및 考察

東醫寶鑑의 以道療病⁹⁾에서 太白眞人의 말을 빌어 가로되 “欲治其疾에 先治其心할 것이니 必正其心으로 乃資於道이면 使病者 盡去心中疑慮思想 一切妄念 一切不平 一切人我悔悟하고 平生所爲過惡을 便當放下 身心하여 藥未到口라도 病已忘矣라” 하였으니 이것이 以道治心療病의 大法으로 移精變氣思想의 根幹精神인 것이다.

治心으로 治病하는 移精變氣療法을 論함에 있어서는 心身의 相關性에 대한 考察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東醫學의 心身一如思想의 배경을 살펴보고나서 移精變氣療法에 대해 고찰해 나가기로 하겠다.

1. 東醫學에서 보는 心身의 相關性

1) 心과 身의 역할

內經의 靈蘭秘典論¹⁴⁾에서 “心은 君主와 같은 位置이며 神明이 거기서 부터 난다” 고 하였는데 懼仙은 말하기를⁹⁾ “心은 神明의 집이니(중략) 心이란 것은 或은 놀라고 或은 燥妄하며 或은 思慮하여 하룻 동안에도 暫時의 사이에 方寸의 地域에서 炎炎하기가 불과 같다. 만약 嗜慾이 한번 萌動하면 곧 善美하지 못하다. 七情과 六慾이

心으로부터 生動하는 것이 모두다 그러한 따위들이므로 心을 靜해야만 可히 神明에 通하여 事物이 이르기 前에 미리 알아서 防止하게 된다. (중략)

만약 一念이 이미 萌動하여 神이 밖으로 달리고 氣가 안에서 흩어지면 血이 氣를 따라 通하고 營衛가 昏亂하여 萬病이 서로 侵攻하는데 이것이 모두 마음으로부터 發生하는 것이다. 天君(心)을 怡養하여야만 疾病이 不作한다라는 말이 卽 治心の 要諦이다”라 하였다.

2) 神의 表現과 氣血의 相關 관계

1) 에서 나타나 있듯이 精神的 表現인 感情의 根源은 心이 主宰하는 神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素問 舉痛論의 14)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驚則氣亂, 思則氣結이라는 표현에서 感情의 變化에 따르는 이들 六證이 各其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變化의 根本을 이루는 것은 氣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神의 表現인 感情이 곧 氣를 變化시키기도 하고 傷하게도 하면서 氣의 循環에 직접 影響을 끼치게 되는 것이니 神과 氣는 體와 用의 關係로서 이는 比喩할때 물이든 그릇에 불을 피우면 수증기가 오르는 운동이 생기는 것과도 恰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人體의 生命活動에서 必須의 物質이며 動力의 기초이기도 한 機能的 基礎物質인 氣와 器質的 基礎物質인 血이 相合된 氣血이라는 東醫學的 體構成物質의 運行은 철저하게 相互依存의 關係를 유지하고 있어서 氣가 行하면 血도 行하고 氣가 滯하면 血도 滯하므로 ‘氣爲血帥’라고 하며 또한, 氣는 필수적으로 營血에 의뢰하여야만 作用을 發揮할 수 있으므로 ‘血爲氣母’라고도 한다.

이상에서 感情의 變化는 氣血의 運行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미쳐 이것이 身體的 變化로 유발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해 낼 수 있게 된다.

整理해 보면 舉痛論의 14) 의 “百病生於也(중략)”

- 怒則氣逆, 甚則嘔血乃飧泄, 故氣上矣
- 喜則氣和志達, 營衛通利, 故氣緩矣
- 悲則心系急, 肺布葉舉而 上焦不通, 營衛不散熱氣在中, 故氣消矣
-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 驚則心無所依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故氣結矣”라는 표현은 感情의 變化가 人體에 하나의 Stress로 작용할때 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現象을 氣의 變化로써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內經全般에 걸쳐 情志의 變化가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無數한 表現이 散在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Stress로 作用하는 感情의 變化가 誘發시키는 氣의 變化와 이로 因해 影響받는 人體內部的 生理變調는 不可分의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깊이 洞察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五行論의 立場에서 본 神, 五臟, 全身의 연관성

素問의 宣明五氣論 14) 에서 五臟藏神이라 하여 “心藏神, 肺藏魄, 肝藏魂, 脾藏意與智, 腎藏精與志, 是謂七神也”라 하였으며 本神篇 15) 에서는 五臟所藏이라하여 五臟의 기능과 精神기능과의 關係를 “肝藏血 血舍魂, 脾藏營 營舍意, 心藏脈 脈舍神, 肺藏氣 氣舍魄, 腎藏精 精舍志”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陰陽應象大論 14) 에서는 “肝在志爲怒, 心在志爲喜,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憂,

腎在志爲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五臟의 變調는 특정한 感情의 偏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逆으로 感情의 盛衰激沈의 偏壁상태가 特定臟器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런데 東洋醫學에 있어서의 五臟의 概念은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만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 人體內的 모든 臟器, 組織중에서 機能上 五行論의 同一特性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거나, 經絡學의 同一流注上에 屬한 部分들을 臟器系統別로 모아 놓은 集合體의 概念인 것으로 西洋醫學과 구별되는 獨特하고 特殊한 體系이다.

이에 대하여 金³⁾은 ‘類機能體系’라는 理論으로 說明하고 있는데, 「細胞는 細胞대로 組織은 組織대로 器官은 器官대로 各自의 特性을 지니면서 全體로서의 相關의 特性을 또한 지니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同一個體가 기능상 分化된 臟器를 지니면서 相關關係를 갖고 있는 特性들을 臟器系統別로 整理할 수 있으니 運動器系統, 循環器系統, 消化器系統, 呼吸器系統, 排泄器系統이다. 이를 主로 遂行, 統司 또는 代表하 臟器와 聯關시켜 보면 肝臟(運動), 心臟(循環), 脾臟(消化), 肺臟(呼吸), 腎臟(排泄=비뇨생식기)이 된다. 따라서 人體의 어떤 局所的 機能이라 하더라도 그 現象들 間에는 機能上的 類似性 또는 機序上的 蜜接한 連關이 있으므로 이들을 各 臟器 중심으로 系統지우며 이들을 機能性質 中心으로 分類한다.

즉, “運動”을 主司하는 “肝臟”機能系統을 “發生”機能系統으로 “循環”을 主司하는 “心臟”機能系統을 “推進”機能系統으로, “消化”를 主司하는 “脾臟”機能系統을 “統合”機能系統으로, “呼吸”을

主司하는 “肺臟”機能系統을 “·節”機能系統으로, “排泄”을 主司하는 “腎臟”機能系統을 “沈靜”機能系統으로 分類하니 이와같이 生物의 五大特性인 營養, 呼吸, 排泄, 生長, 運動을 主司하는 五臟과 이와 蜜接하게 關聯지어지는 現象들을 發顯하는 人體內的 各細胞, 組織, 器官 및 精神現象들을 機能上, 機序上 五臟과 連關짓고 이들을 機能性質을 中心으로 整理한다」라고 說하고 있다.

따라서 內經의 五行配屬理論을 類機能理論으로 分析하여 볼 때 五臟藏神, 五臟所藏, 五臟在志의 내용은 다만 西洋醫學의 獨立臟器와 配置된 精神機能과의 聯關性이 아니라 손 끝에서 발 끝에 이르는 모든 人體組織과 精神機能의 直接的이고도 緊密한 연관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東洋醫學思想속에 生生히 숨쉬고 있는 ‘神形一體原則’이 人體의 極히 微細한 部分과 精神의 極히 纖細한 表現일 지라도 서로 無關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精密한 觀察의 結果로 얻어진 行動하는 精神, 思考하는 肉體에의 洞察이라 할 것이다.

4) 精神과 經絡, 全身의 相關性

內經海論篇¹⁵⁾에서 “夫十二經脈者 內屬於臟腑 外絡於肢節”이라 했고 本藏篇¹⁵⁾에서는 “經脈者 所以行血氣 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라고 했으며, 經脈篇¹⁵⁾에서는 “經脈者 所以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이라 하였는바 經絡은 人體內에 있는 氣血運行의 通路로서 全身에 整體聯絡網을 構成하여 五臟六腑, 四肢百骸, 五官九竅, 皮·肌肉, 毛髮에 이르기까지 人體의 모든 組織과 器官사이를 빠짐없이 연결하여 두고 氣血으로써 골고루 濡養 灌溉함으로써 生命活動과 人體의 均衡協調關係를 維持시켜 주는 東洋에 있어서만의 獨特한

系統인 것이다.

그런데 經絡의 作用이 모두 氣血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氣血循環의 變調上 人體의 모든 부분에 걸쳐 分布되어 있는 經絡系統의 變調를 초래하고 이것이 肉體의 疾病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 氣血의 循環은 神의 表現인 感情의 影響을 받아 變化하기도 하고 傷하기도 하는 것임으로, 經絡作用이 또한 感情의 變化에 따라 左右되리라는 것을 알게된다.

즉, 人體는 五行配屬의 五臟機能系統의 精神과 相關하여 心身一如의 關係를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絡學的으로도 氣血運行을 위주로 하는 經營作用이 感情의 變化와 相關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神形一體의 原則에 의해 영위되는 全體라 할 것이다.

2. “移精變氣療法”에 대한 考察

東洋醫學은 氣를 다스리는 學問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學問이라고 한다.¹⁰⁾ 素問의 移精變氣論¹⁴⁾에 “得神者昌 失神者亡”이라 한것은 東洋의 心身一如, 神形一體論에 立脚하여 各個人의 情志狀況이 그 肉體에 影響을 끼치는 程度가 얼마나 莫重한가 하는 사실에 대한 端的인 現現 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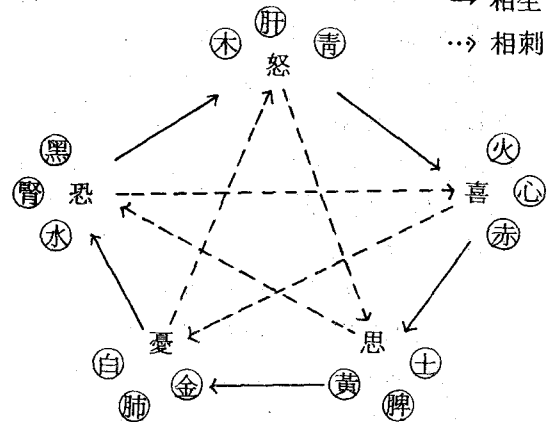
情志狀況을 바꾸어 줌으로써 氣의 變調狀態를 均衡있게 바로잡고 氣를 바로잡음으로써 病을 治療하는 “移精變氣療法”은 오늘날의 精神心理療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治療事例의 分析에 의하여 크게 ①五志相勝爲治療法 ②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 ③驚者平之療法 ④誑治療法 ⑤至言高論療法의 다섯가지 治療法으로 分類할 수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理論의 背景과 現代적 意味는 다음과 같다.

1) 五志相勝爲治療法

陰陽應象大論¹⁴⁾에 가로되

“肝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心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脾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肺在志爲憂 憂傷肺 喜勝憂
腎在志爲恐 恐傷腎 思勝恐”이라 하였고

圖 1)



張)¹⁶⁾은 凡此者 內經有治法 但以 五行相勝之理治之라 하여,

“怒傷肝 肝屬木 怒則氣併於肝而 脾土受邪 木太過則 肝亦自病
喜傷心 心屬火 喜則氣併於心而 肺金受邪 火太過則 心亦自病
思傷脾 脾屬土 思則氣併於脾而 腎水受邪 土太過則 脾亦自病
悲傷肺 肺屬金 悲則氣併於肺而 肝木受邪 金太過則 肺亦自病
恐傷腎 腎屬水 恐則氣併於腎而 心火爲邪 水太過則 腎亦自病”이라고, 五行相克에 따르는 五志相勝의 기전을 밝혔으며,

“悲可以治怒 以愴惻苦楚之言感之
恐可以治喜 以迫懼死七之言怖之
怒可以治思 以汚辱欺罔之言觸之
喜可以治悲 以諛浪藝狎之言娛之

라고 하여 五志相勝治療의 具體的 方法을 提示하고 있다.

事例에서와 같이 實際治療에 있어서 五志相勝爲治療法은 客觀的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認定되는 感情의 偏僻으로 誘發된 疾病狀況을 改善하기 위하여 登場人物과 適切한 背景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이 境遇 治療者와 患者만이 登場人物이 될 수도 있다) 現代의 演劇療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偏僻된 感情에 너지를 變換, 解消시키는 方法에 있어서 東洋의 直觀哲學에 基本을 둔 五行相克 理論을 이용하는 바 體系的이고 計劃的으로 運用된다는 점에서 單純한 演劇療法보다 훨씬 次元이 높은 훌륭한 治療法이라 할 것이다.

2) 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

張) 16)은 “醫貴有才라 若無才면 何足應變無窮인고”라 했고 또한, “凡此法에 必詭詐譎怪 無所不至라야 然後 可以動人耳目하여 易人聽視라. 若胸中 無材器之人이면 亦不能用此法也라 했는데, 이는 五志相勝의 범주를 벗어난 以情相勝治法의 應用變化가 無窮無盡함을 喝破한 것이라 하겠다.

“醫者是 意也”라 하였듯이 五志相勝의 運用에 있어서 醫師는 모름지기 理論에만 拘礙될 것이 아니라 때로 狀況에 따른 裁치와 臨機應變이 필요한 것이다.

이 精神療法도 五志相勝爲治療法과 마찬가지로 現代의 演劇療法에 該當한다 할 수 있다.

3) 驚者平之療法

素問의 至眞要大論 14)에 “驚者平之하라”고 하였다.

張) 16)은 驚者爲陽從外入也이고 恐者爲陰으로 從內出인즉 驚者 爲不知故也이고 恐者 自知也라.

足少陽胆經은 屬肝木인데 胆者는 敢也니

驚怕則胆傷矣라 하였다.

또한 張) 16)은 驚者平之라 平者는 常也인데 平常見之면 必無驚이라 하였고, 夫驚者는 神上越也니 從下擊凡에 使人下視로 所以收神也라 하여 驚情에 대한 屬性과 治法을 提示하였다.

驚者平之療法은, 不安이나 症狀을 일으키는 原因이 되어있는 刺戟을 弱한 것부터 順次的으로 強한 刺戟을 段階的으로 주어 점차적으로 이들 刺戟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증상을 해소시키는, 現代의 系統的 脫感作療法과 一致하는 東洋傳來의 治療法이다.

4) 誑治療法

이것은 患者에 대한 暗示에 依해 病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現代의 心理學에서는 「暗示란 어떤 사람이 信念이나 行動의 基礎로서 어떤 意見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暗示란 말이나 그밖의 刺戟을 마음속에 無條件 받아들인 결과 그것이 感情이나 信念 또는 行動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¹⁹⁾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랜리의 단편 ‘마지막 잎새’에서 肺炎에 걸려 다 죽게된 한 少女가 늙은 畫家에 依해 그려진 가짜 잎사귀 한 잎으로 因해 蘇生하게 되는 이야기등 이와 類似한 無數히 많은 例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周圍로부터 받아들인 或은 自身이 만든 어넌 暗示에 依해 精神도 肉體도 끊임없이 다시 再暗示를 만들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存在하지 않거나 티무니 없는 事實일지라도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確固不動한 實體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主目할 만한 事實이다. 이것을 病이란 立場에서 生覺해 보면 대개의 患者는 自身이 만든 어넌 妄靈(病에 대한 그릇된 自己暗示)에 怯을 먹고 있거 때문에 治療될 病도 잘 낫

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現代의 暗示療法과 一致하는 것으로 催眠療法과도 서로 相通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至言高論療法

行動의 決定이나 狀況의 選擇過程 등에서 心理的 葛藤과 彷徨을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혹은, 활기가 없거나 불안, 초조해 하는 상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나 좋은 해결 方案을 提示함으로써 葛藤을 解消시켜 증상을 치료하는 이 법은 상대에 대해 保證, 說得, 再教育 등으로 안정시켜서 자신을 되찾도록 용기를 주는 現代에 있어서의 支持療法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移精變氣療法の 事例에 對한 分析

1) 여기에 引用된 20 例를 治療法에 따라 分類하여 보면, ①五志相勝 爲治療法 중 怒勝思法에 依한 것이 6 例, 喜勝憂法에 依한 것이 6 例, 恐勝喜法에 依한 것이 2 例 있었고 ②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에 該當되는 것이 3 例 있었으며 ③驚者平之療法에 依한 것이 1 例 ④誑治療法에 依한 것이 1 例 ⑤至言高論療法에 依한 것이 1 例 있었다. 이를 現代의 精神療法과 비교하여 圖表로 그리면 表 1)과 같다.

表 1)

移精變氣療法		例數	現代의 精神心理療法	例數
①五志相勝爲治療法	怒勝思法	6	演劇療法	14
	喜勝憂法	6		
	思勝恐法	0		
	悲勝怒法	0		
	恐勝喜法	2		
②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		3	演劇療法	3
③驚者平之療法		1	脫感作用療法	1
④誑治療法		1	暗示療法(催眠療法)	1
⑤至言高論療法		1	支持療法	1
		20		20

2) 五志相勝爲治療法중에서 思勝恐法에 依한 治療事例와 憂勝怒法에 依한 治療事例는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東洋의 醫書 어느 곳에서도 이 두樣式의 無用論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 두가지 治療法이 現實에 附合되지 않기때문에 適用되지 않은 것이라기 보다 偶然에 依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思慮된다.

3) 事例의 調査過程에서 많은 境遇에 여기서 例示된 事例들과 거의 같은 狀況임에도 불구하고 治療에 가서는 藥物療法이나 針灸등 其他의 다른 治療法이 應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음의 病에 藥物이나 針灸등이 有效하다는 사실을 確認할 수 있었거나와 精神治療와 다른 治療法이 併合될때 더 效果의 일 수도 있을 것으로 思慮되었다.

IV. 結 論

黃帝內經에 와서부터 뚜렷하게 그 이론을 찾아볼 수 있는 東洋의 精神心理療法 卽, 移精變氣療法은 文獻考察의 結果 2500 年 以上の 悠久한 歷史性을 가지고 發展되어 온 것임을 證明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治療事例를 分析하고 現代의 精神療法과의 關係에 대해 考察한 결과 이를 다섯가지치료법으로 大別할 수 있었는데 이들 各各의

療法들이 보여주는 現代的 意味는 다음과 같다.

1. “五志相勝爲治療法”은 客觀적으로 뚜렷한 七情所因이 認定되는 境遇에 그 感情의 偏僻으로 誘發된 疾病狀況을 改善하기 위하여 五行相克理論을 活用한 것으로 現代의 演劇療法과 手法上 一致하는 治療法이다.

2. “五志相勝爲治의 變形療法” 또한 以情相勝에 依한 治療法으로서 手法上 現代의 演劇療法과 一致하는 治療法이다.

3. “驚者平之療法”은 現代의 脫感作療法과 一致하는 治療法이다.

4. “誑治療法”은 現代의 暗示療法과 一致하는 것으로 催眠療法과도 相通하는 治療法이다.

5. “至言高論療法”은 現代의 支持療法과 一致하는 治療法이다.

參 考 文 獻

1. 金富弼: 三國史記, 圖書出版青化, 서울 1985. p.331,332.
2.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杏林出版社 서울, 1980. p.32
3. 金完熙: 新版臟腑生理學, 경희한의대생리학 교실, 서울, 1982. p.6.7
4. 金賢濟·洪元植: 醫史文獻編, 成輔社, 서울, 1983. pp.166, 167
5. 李誠彥: 病은 마음으로 고쳐라, 경영문화원, 서울, 1978
6. 一 然: 三國遺史, 廣曹出版社, 서울, 1984, pp.159. 160
7. 趙憲洙: 通俗漢醫學原論, 醫文社
8. 崔容泰·李季鎬: 精解針灸學, 杏林書院 1974, pp.45 ~ 47.
9.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77 p.75, pp.94 ~ 105
10. 黃義完: 心身症, 杏林出版社, 서울, 1984, pp.36 ~ 46.
11. 李符永: 東醫寶鑑에 나타난 精神病治療 神經精神醫學 Vol15 No1, 1976
12.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3.
13. 李 挺: 醫學入門, 翰成社, 서울, 1980 p. 37, p.39
14. 張馬合註: 黃帝內經素問,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陰陽應象大論, 靈蘭秘典論, 移精變氣論, 舉痛論, 至真要大論
15. 張馬合註: 黃帝內經靈樞,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經脈篇, 海篇, 本藏篇, 本神篇
16. 張子和: 儒門事親, 旋風出版社, 台北, 1978, 卷3 pp.21 ~ 23, 卷7 pp.10 ~ 11
17. 朱震亨: 丹溪心法, 五州出版社, 香港, 1981.
18. 清·陳夢雷刺纂: 醫方考(醫部全錄), 新文禮出版社, 台北, 1979, 12 册 pp.259 ~ 263
19. 坂上筆: 마음의 화장법, 新女苑, 서울, 1980, pp.77, 78.